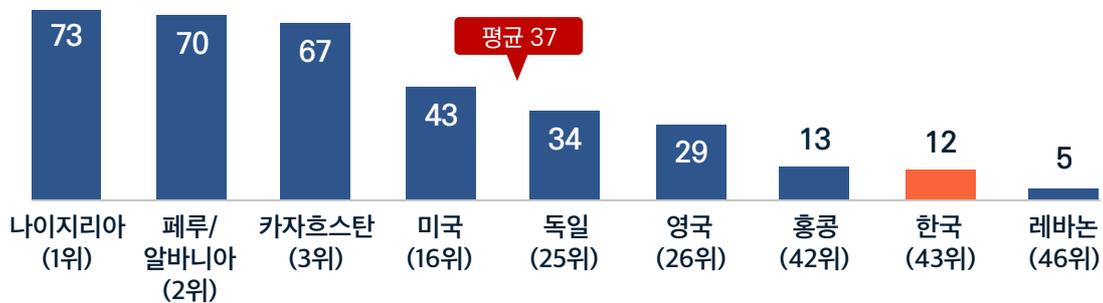


● 새해 개인의 살림살이 ‘좋아질 것’, 세계 46개국 중 한국 43위로 최하위권

-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새해 살림살이 전망은 전체 평균 ‘좋아질 것’ 37%, ‘나빠질 것’ 25%, 작년과 ‘비슷할 것’ 31%으로 낙관론이 비관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
- 가장 낙관적인 나라는 ‘나이지리아’(73%)이며, 가장 비관적인 나라는 ‘레바논’(76%)으로 조사됨
- 한국은 ‘좋아질 것’ 12%로 46개국 중 43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함
- 이번 조사에 참여한 46개 나라 중 26개국은 새해 낙관론이 10%포인트 이상 우세하고, 13개국은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(Hope Index, 이하 ‘희망 지수’)가 10%포인트 미만임.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은 비관론이 낙관론을 10%포인트 이상 앞섬

[그림] 새해 개인 살림살이 인식 (‘좋아질 것’, 세계 46개국 조사, 주요 국가 표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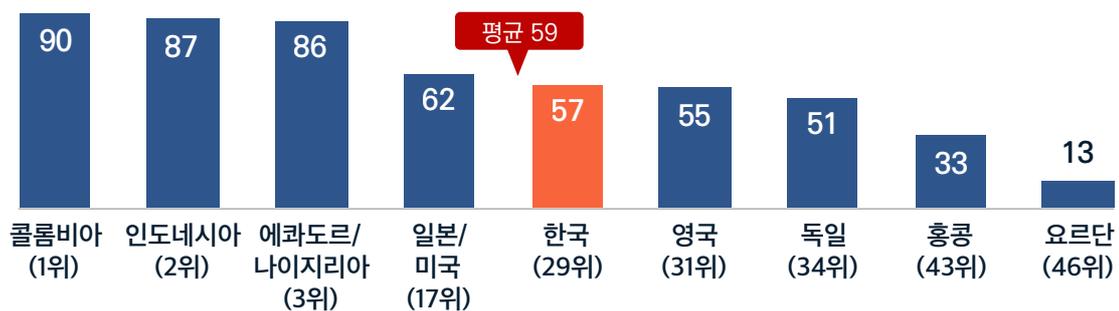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: 갤럽 인터네셔널, 'Gallup International End of Year Survey 2019'. (46개국 성인 총 45,676명, 면접/전화/온라인조사, 2019.11~12월)
 ** '좋아질 것'만 표시하였고, '나빠질 것', '비슷할 것'은 표시하지 않음

● 한국인의 ‘주관적 행복도’는 57%, 46개국 중 29위

- 우리나라 국민에게 현재 본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‘주관적 행복도’를 묻은 결과 ‘행복하다’는 응답은 56%로 나타났으며, 46개국 중 29위에 위치함

[그림] 주관적 행복도 (세계 46개국 조사, 주요 국가 표시)



*자료 출처: 갤럽 인터네셔널, 'Gallup International End of Year Survey 2019'. (46개국 성인 총 45,676명, 면접/전화/온라인조사, 2019.11~12월)
 **5점 척도 항목으로 '행복하다'(매우 행복하다+행복하다)으로 표시하였고, '어느 쪽도 아님'과 '비행복'(행복하지 않다+매우 행복하지 않다)은 표시하지 않음

“주관적 행복감이 타고난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적 인식을 드러낸다면, 새해 전망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각국의 정치/경제 상황과 발전 방향을 반영한다. 46개국 중 주관적 행복감이 타고난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적 인식을 드러낸다면, 새해 전망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각국의 정치/경제 상황과 발전 방향을 반영한다. … 새해 전망과 개인의 행복은 해당 국가의 부와 관련이 없으며, 현 정치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 요인이다.”(칸초 스토이체프, 갤럽 인터네셔널 회장)